

---

# 대한민국산업展-추격을 넘어 선도의 시대로(가제) 관련 유관기관 업무협약 및 사례조사

---

2023. 7. 19. - 7. 22.

글로벌지식협력단지운영단

 한국개발연구원

## 1 출장 배경 및 목적

- GKEDC는 고도화와 新성장동력 발굴로 경제위기를 극복해온 산업발전 역사를 조망하여 직면한 경제위기를 타개할 국민 총화의 계기 마련하고자 세계시장에서 높은 경쟁력을 발휘하고 있는 대표 산업과 기업의 출발과 성장, 혁신과 글로벌 지향, 사회적 기여 등을 전시하는 '대한민국산업展-추격을 넘어 선도의 시대로(가제)'를 준비 중임.
- 본 출장은 일본 교토와 오사카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의 기업가·산업 중심 전시관 사례조사 및 업무협의를 통해 대한민국산업展 조성과 관련된 유의미한 시사점을 모색하고자 함.

## 2 출장개요

- 출장기간: 2023년 7월 19일(수) ~ 22일(토)
- 출장지: 일본 교토, 오사카
- 주요 활동사항
  - (기관소개) GKEDC의 과업 및 주요 활동 전반에 대한 소개를 통해 유관기관 관계자들의 GKEDC에 대한 이해도 제고
  - (업무협의 및 사례조사) 오사카기업가박물관, 파나소닉박물관 등 일본 내 기업 및 산업 관련 주요 전시관 등을 방문하여 사례조사를 실시하고, 담당자 업무협의를 통해 각 전시관의 전시 기획, 연출 전략 등 전문 지식과 경험 등을 파악하고자 함.
- 출장자(총 3인)

#	성명	소속	직함	역할
1	강동수	KDI GKEDC	단장	사업책임자
2	김순한	KDI 전시기획팀	전시기획팀장	사업관리자
3	맹정환	KDI 전시기획팀	연구원	사업실무자

### 3 출장일정

□ 세부 일정(안)

날짜	시간	일정	비고
7/19(수)	16:35	[이동] 대한민국 김포 출발	KE2119
	18:25	[이동] 일본 오사카(간사이) 도착	
	19:16-20:32	[이동] 간사이공항→교토역 도착	
	20:32-21:00	[이동] 호텔 이동 및 체크인	
7/20(목)	11:30-14:30	[사례조사 및 면담] 마쓰시타기념도서관	
	15:00-17:30	[사례조사] 이나모리도서관	
	17:30-20:00	[이동] 호텔 이동 및 체크인	
7/21(금)	11:30-14:00	[사례조사 및 면담] 파나소닉뮤지엄	
	14:30-17:00	[사례조사] 오사카기업가박물관	
7/22(토)	11:00-12:30	[사례조사] 오사카역사박물관	
	15:00-16:30	[이동] 오사카→간사이공항 이동	
	19:35	[이동] 일본 오사카(간사이) 출발	KE2120
	21:20	[이동] 대한민국 김포 도착	

## □ 4 주요 내용

### [관계자 면담]

#### 1. 교토 마쓰시타기념도서관 사례조사 및 관계자 면담

□ 일 시: 2023년 7월 20(목) 11:30~14:30

□ 장 소: 교토 마쓰시타기념도서관

□ 참석자

- 내부: 강동수, 김순한, 맹정환(직함 생략)
- 외부: 遠藤 紀夫 (교토 마쓰시타기념도서관 관장)  
최주영(통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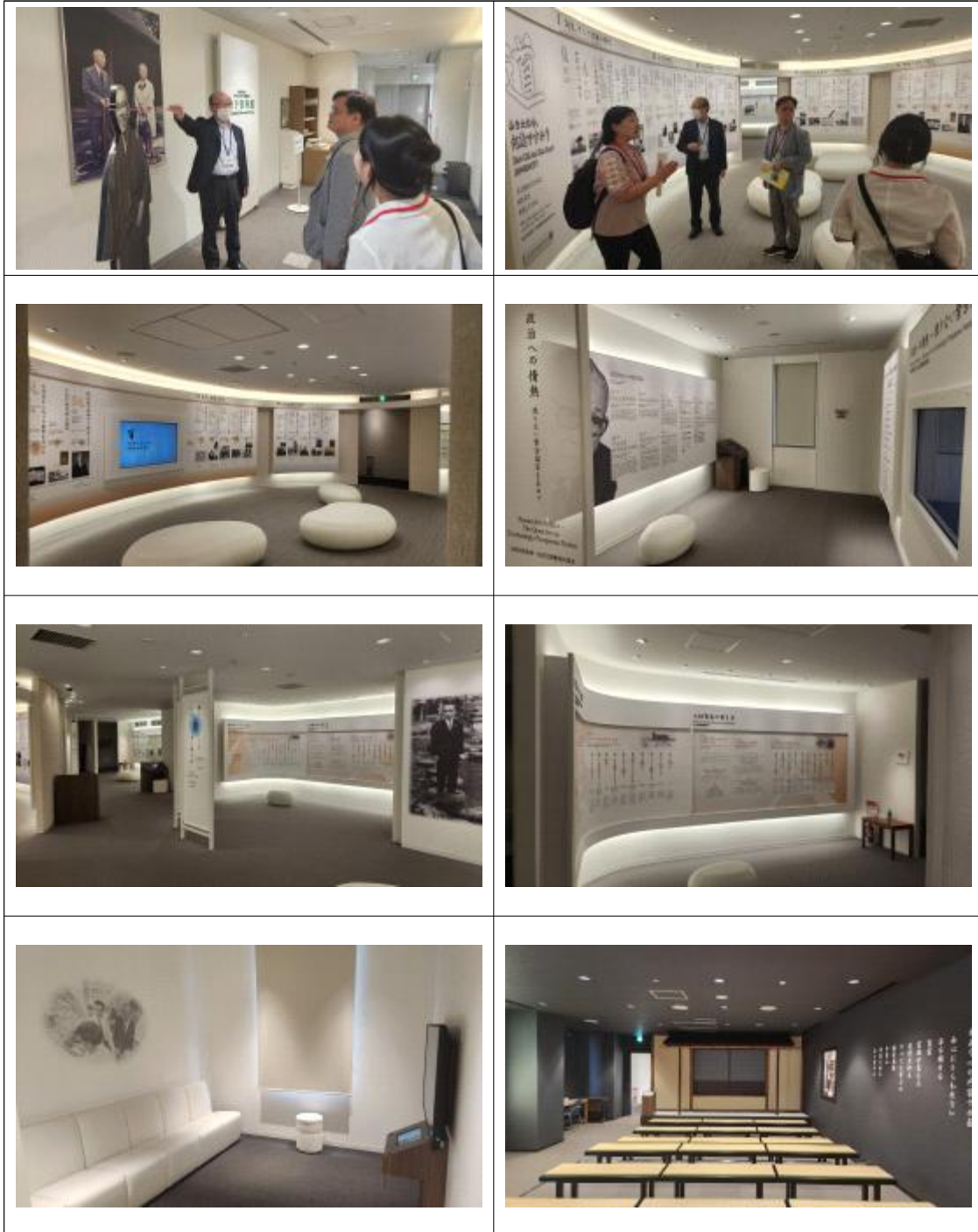
□ 주요 내용

- 마쓰시타기념도서관은 파나소닉 그룹 창업자이자 PHP연구소 창설자이기도 한 마쓰시타 고노스케의 탄생 100년을 기념하여 1994년 5월에 개관하였다고 밝힘.
  - 마쓰시타 고노스케가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방식, 인생에 대한 생각, 기업 경영 자세, 그리고 국가·사회·세계에 이르는 폭넓은 내용을 저작과 영상, 그래픽 패널 등을 사용하여 효과적으로 전달하고자 노력하였다고 언급함.
  - 단층으로 구성되어 전시관 규모가 크지 않아 전시콘텐츠 요약에 신경을 썼으며, 장식이 최소한으로 되어있는 것도 전시의 특징이라 언급함. 특히 전체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음.
  - 마쓰시타 고노스케와 관계자들의 영상 시청 코너를 마련하고 있으며, 관련 자료들을 지속적으로 추가할 예정이라 언급함. 사후 30여년이 다 되었으나 아직 발굴되지 않은 자료가 많이 남아있어 꾸준한 업데이트를 지속할 예정임.
- 마쓰시타기념도서관 전시의 특징
  - 비록 공간은 크지 않으나 전시콘텐츠가 잘 요약되어 있어 비슷한 공간

규모를 가진 대한민국산업展의 효율적 공간 활용 사례로 추천하였음. 특히 전시 내용 뿐만 아니라 디자인 및 소품 활용의 측면에서도 참고할 만한 부분이 있다고 언급함.

- 각 존은 얇은 천재질의 파티션과 파스텔톤의 연한 색상을 활용하여 구분되어 있음. 디자인이 잘 되어있어 복잡하지 않고 깔끔한 공간 분할을 보여줌. 또한 공간에는 공간과 잘 어울리는 구름형태의 백색 스툴이 있어 쉬거나 앉아서 전시를 관람할 수 있으며, 디자인적인 면에서 공간과 방해되지 않고 어울림. 또한 해당 구조물은 공간을 좁지 않게 해주는 효과를 줌.
- 전시콘텐츠의 수준은 청소년 및 성인 관람객에 맞추어져 있으며, 전시내용의 특성상 학생, 기업인의 연수 목적으로의 방문이 대부분이라고 설명함. 다만, 흥미를 끌 수 있는 체험이 부족하다는 점은 아쉬운 부분으로 꼽힘.
- 마쓰시타 고노스케와 관계자들의 영상 시청 코너를 전시실 내 네 군데 마련하고 있음. 약 74종의 인터뷰 및 생전 영상을 일본어와 영어, 중국어(일부 한국어)로 시청 가능함. 별도로 마련된 영상실에서는 그의 정신을 토대로 제작된 영상 시청 가능함. 한국인 관람객이 많이 찾는다면 한국어 영상 제작이 더 많아질 것이라 언급함.
- 마쓰시타기념도서관과 오사카 파나소닉뮤지엄과의 차별성
  - 동일한 인물을 기념한다는 점에서 교토의 마쓰시타기념도서관과 오사카의 파나소닉뮤지엄의 성격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언급함.
  - 파나소닉뮤지엄이 기업가로서 마쓰시타를 바라본다면, 마쓰시타기념도서관은 그가 설립한 PHP연구소를 중심으로 인간으로서의 마쓰시타를 연구하고 그와 연관된 자료를 전시하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다고 밝힘.
  - 두 기관은 서로 도움을 주고 있지만 파나소닉뮤지엄은 기업에서, 마쓰시타기념도서관은 재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별도의 기관임을 설명함.

□ 관련 사진



## 2. 교토 이나모리도서관 사례조사

□ 일 시: 2023년 7월 20일(목) 15:00~17:30

□ 주요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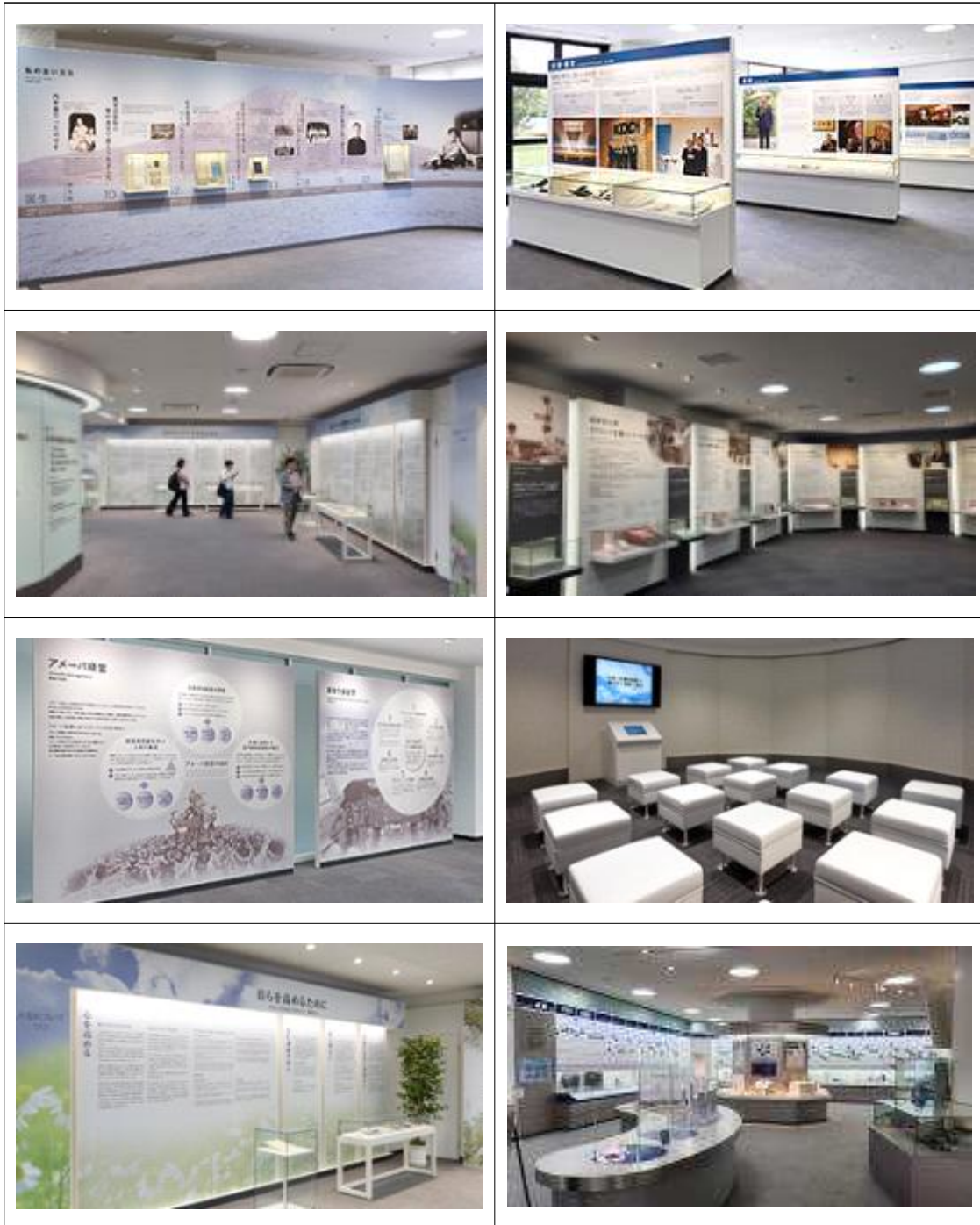
○ (전시내용 및 특징)

- 이나모리도서관은 교세라의 창업자인 이나모리 가즈오의 삶과 경영철학에 초점을 맞춘 기업가전시관임.
- 엔지니어이자 경영자로서 이나모리 가즈오의 업적과 자선활동을 선보이는 공간으로 일반 대중에게 이나모리의 철학과 업적을 연구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함.
- 당초에는 교세라 직원들에게 교세라 철학(창립자 이나모리 가즈오의 삶과 경영에 대한 견해)을 교육하기 위한 장소로 설립
- 교세라 그룹 외부에서 온 방문객들도 이나모리 가즈오의 철학을 공유할 수 있도록 대중에게 공개
- 또한 컨퍼런스, 세미나 등을 주최하여 이나모리 가즈오의 말과 생각을 통해 모든 사람이 교세라 그룹의 철학을 배우는 장소로 활용하고 있음.
- 이나모리도서관의 층별 소개
  - 이나모리도서관은 이나모리 가즈오 개인사에서 시작하여 경영철학, 교세라 그룹의 발전사 및 KDDI, JAL 경영에 이르는 인생 전반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1층의 전시 요약은 시작으로 2층에서는 교세라, KDDI, JAL에 재직하는 동안 사용한 경영노하우(관리방법)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음. 3층에서는 이나모리 가즈오 개인의 삶과 경영철학의 원칙에 대해 설명하고 있으며, 4층에서는 이나모리 재단과 교토상, 그가 설립한 평생교육원인 Seiwajyuku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음.

○ (시사점)

- 이나모리도서관의 전시물은 기본적으로 백색 벽면에 층별로 동일한 규칙을 가지고 디자인 되어있음. 특히 가장 중심이 되는 2층과 3층의 경우 동일한 패턴의 디자인이 반복되고 있어 전시의 재미가 반감되는 측면은 있으나 정확히 필요한 것만 보여준다는 느낌이 강함.
- 전시디자인이 획기적이거나 차별화되어있다고는 볼 수 없으나 정확한 내용이 정제되어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음. 그러나 전시의 디자인이 전시를 돋보이게 한다거나 강세를 주는 등의 요소 없이 동일하게 이루어져 있음은 아쉬운 점임.
- 2층 기술·경영 섹션의 경우 동일한 디자인의 2400×2400mm정도의 패널 20개로 구성되어 있음. 한 면은 연도별 사건 기준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사건타이틀 및 설명, 관련 유물로 구성된 하나의 블록임.
- 3층 사상 섹션 역시 마찬가지로 동일한 디자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2층과는 달리 배경이미지를 활용하는 등의 디자인이 되어있음(철학에 대한 섹션이라 자료보다는 개념 설명이 주로 이루어짐).
- 1, 3, 4층에는 영상실을 운영하고 있음. 1층의 영상실은 이나모리 가즈오를 왜 주목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으로 전시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있으며, 3층에는 이나모리 가즈오의 생애, 4층에는 그의 경영철학인 아메바경영에 대한 내용의 영상이 4개 국어(일, 영, 중, 한)로 서비스됨.
- 최대한 단순하게 이루어진 동선으로 관람객의 혼잡 없이 전시를 관람할 수 있으며, 전시장 어느 곳에서나 깔끔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음. 다만 다르게 본다면 전시가 비어보일 수 있다는 단점이 있음.
- 대한민국산업展의 경우 다양하고 많은 기업의 이야기를 전시콘텐츠화할 예정이므로 이나모리도서관과 같이 깔끔하고 정제되어 있는 느낌의 전시분위기를 주는 것이 하나의 방안이라고도 생각되나, 관람객의 관심을 끌 수 있는 킬러콘텐츠 및 전시 포인트 요소 등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관련 사진



### 3. 오사카 파나소닉뮤지엄 사례조사 및 관계자 면담

□ 일 시: 2023년 7월 21일(금) 11:30~14:00

□ 장 소: 오사카 파나소닉 뮤지엄

□ 참석자:

- 내부: 강동수, 김순한, 맹정환(직함 생략)
- 외부: 野 智樹(오사카 파나소닉뮤지엄 연구원)

□ 주요 내용

○ 파나소닉뮤지엄의 소개 및 전시구성

- 파나소닉뮤지엄은 2018년 3월 7일, 창업 100주년을 맞아 설립한 기업박물관으로 창업자 마쓰시타 고노스케의 창업스토리와 파나소닉의 발전사를 볼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고 소개함.
- 전시관은 창업자 마쓰시타 고노스케의 인생스토리를 담은 마쓰시타고노스케 역사관과 파나소닉의 초창기부터 현재까지의 생산제품을 확인할 수 있는 제조이즘관 두 곳으로 나뉨.
- 파나소닉뮤지엄은 지난 100년간의 기업의 발전목표와 과정, 접근방식과 창업자의 철학을 계승하고 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강조함. 마쓰시타 고노스케의 철학을 계승, 발전한다는 점에서는 교토 마쓰시타 도서관과 유사하나 해당 전시관은 파나소닉 경영과 관련된 과정에 좀 더 집중하고 있다고 밝힘.

○ 파나소닉뮤지엄 마쓰시타 고노스케 역사관의 전시구성 및 특징

- 마쓰시타 고노스케 역사관은 마쓰시타 고노스케의 탄생에서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생애를 총 7개의 장으로 구성하여 설명하고 있다고 소개함. 특히 마쓰시타의 핵심 철학인 '道'를 중심으로 하여 그가 태어난 곳을 상징하는 소나무를 시작으로 전시가 구성되어 있음을 강조
- 전시는 마치 오솔길을 거닐 듯 배치되어 있고, 어둡지만 개별 전시 패널에 빔 프로젝터를 활용한 영상(사진)들이 재생되고 있어 경건한 분위기와 함께 시각적 몰입감을 주고자 함.
- 각 장은 5~6개의 800×2400mm 정도 크기의 설명패널, 쇼케이스, 유물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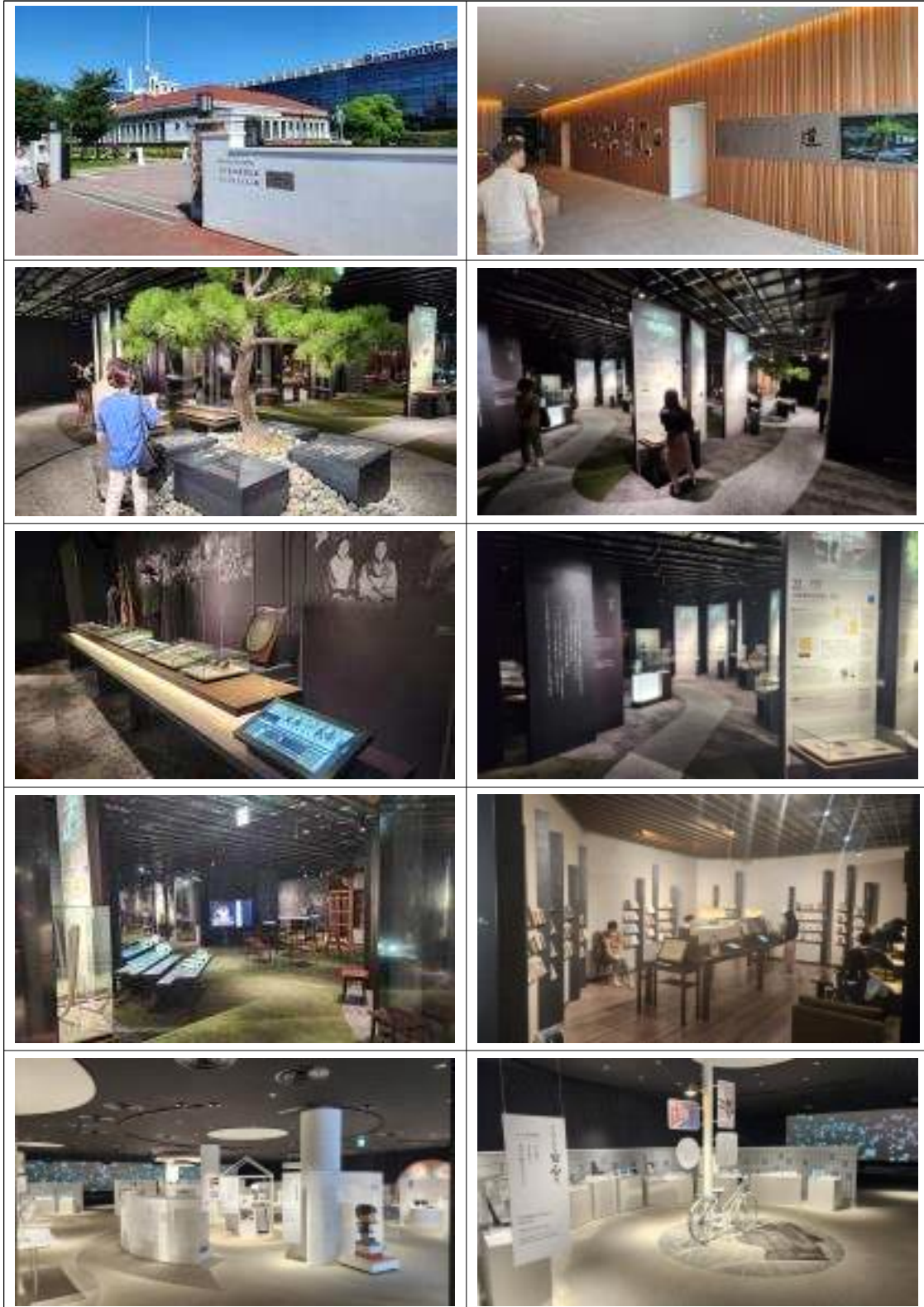
시테이블로 구성되어 있다고 설명함. 유물전시테이블의 모서리에는 시대별 연표의 요약, 설명패널의 상단에는 영상, 중·하단에는 3단의 에세이와 1단의 에필로그로 구성되어 있음.

- 유물과 패널, 영상 등이 조화롭게 이루어져 있으며, 전시공간이 개방되어있지는 않으나 어두운 조명과 인테리어, 각종 영상장비의 활용, 가로가 좁은 패널의 사용 등으로 섹션을 구분하여 개방감 있는 효과를 내는 것이 본 전시관의 특징이라 설명함.
- 전시장 및 설명패널의 크기에 맞게 글씨는 다소 작으나 정리가 잘 되어 있어 뻣뻣하다는 느낌을 주지는 않음. 또한 각 설명패널은 모두 동일한 크기와 디자인을 가지고 있으나 배경(조명) 디자인(디스플레이, 조명 등)으로 인해 뻣뻣하거나 단조로운 느낌이 주지 않도록 신경을 썼다고 언급함.
- 전시 마지막 부분의 라이브러리에는 그 동안 출간된 마쓰시타 고노스케 관련 도서 약 100여권이 벽면에 전시되어 있음. 또한 마쓰시타 고노스케의 경영이념, 어록, 파나소닉 사사 등을 열람하고 검색 할 수 있는 아카이브 시스템을 구축하였음. 전시장 곳곳에 비치된 마쓰시타 고노스케의 주요 어록을 담은 바코드 카드를 아카이브 테이블에 삽입하면 관련 데이터를 쉽게 열람할 수 있어 전시 내용을 추가적으로 알고 싶어하는 관람객에게 인기가 있음.

#### ○ 제조이즘관의 소개와 전시구성

- 파나소닉뮤지엄 제조이즘관에서는 파나소닉이 그 동안 창업 후 생산한 역대 제품이 전시되고 있음. 또한 전시장 입구의 수장고 전시를 통해 라디오, TV 등의 유선 전자제품과 백색가전을 전시함.
- 전시장 내 텍스트는 최소한으로 하고 제품 종류에 따라 전시장을 구분함. 앞서 마쓰시타 고노스케 역사관이 어두운 컬러 및 조명을 사용하였다면, 제조이즘관은 백색의 컬러 및 조명을 사용하고 있어 대비를 이루고 있으며, 이는 전시되어있는 가전제품의 컬러조합을 생각한 디자인으로 생각됨.
- 제조이즘관의 내부는 각 제품군의 구분에 따라 TV, 핸드폰, 세탁기 등으로 구분하였는데, 원형의 종이 조각 모음을 원형으로 조합하여 파티션으로 활용하였음. 낮은 높이와 얇은 파티션 재질로 공간감을 살림.

□ 관련 사진



## 4. 오사카기업가박물관 사례조사

□ 일 시: 2023년 7월 21일(금) 14:30~17:00

□ 주요 내용

○ (전시내용 및 특징)

- 오사카상공회의소가 개소 120주년 기념사업으로 2001년 6월에 개설함. 일본의 산업을 육성하고 사람들의 삶의 질 향상에 공헌한 기업가들을 소개하는 기업가박물관으로 오사카가 자랑하는 기업가 정신을 후세에 전승하여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사회·경제의 발전, 생활 향상의 원동력인 기업가들의 도전과 혁신을 테마로 하고 있는 전시관으로 주요 전시공간에서는 파나소닉, 세계 최초로 인스턴트 라면을 개발한 닛신식품의 창업자를 비롯하여, 오사카가 배출한 105명의 기업가들을 시대별 및 산업별로 소개하고 있음.
- 전시 면적은 대략 1,200㎡로 인물사진-설명-유물로 구성된 800×2400mm 가량의 파티션을 기업가의 성격, 산업주제 등으로 구분하여 전시하고 있음. 좁은 공간에 105개의 패널을 배치하다 보니 전시장이 다소 갑갑해 보인다는 측면이 있음.
- 방문객에게 무료 음성가이드를 제공하고 있음(일어, 영어, 중국어, 한국어). 전시설명이 일어와 약간의 영문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한국어 음성 가이드가 잘 갖추어져 있어 불편함 없이 전시를 관람할 수 있음.
- 전시장에는 기업가에 대한 문헌 및 영상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라이브러리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음. 약 9,000여권의 서가 자료(전기, 사사 등)를 비치하여 공개하고 있으며 각 기업으로부터 제공받은 영상자료를 제공하고 있음.

○ (시사점)

- 전시장은 지하 1층의 넓지 않은 단층 전시관으로 구성되어 있음. 105개 이상의 전시패널을 배치하다 보니 공간이 넓어보이지는 않음. 강한 색상을 사용하고 있으며 층고에 비해 조명이 강한 편임.
- 전시 외에 자체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특별전시나 강연 등 프로그램이 꾸준히 진행되고 있음. 기업가 초청 강연회도 진행하는 등 구체적인 연계프로그램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음.
- 인물 개개인에 대한 주요한 내용을 전시 패널로 축약하고, 전시 패널 앞에 테이블과 자료책자를 비치하여 보다 구체적인 설명이 이루어지는 방

식을 활용함. 해당 방식은 전시콘텐츠가 많은 전시관이 선택할 수 있는 전시기획 방식이라 생각되며, 대한민국산업展 역시 전시콘텐츠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어 향후 전시기획 시 참고할 수 있는 사례라고 판단됨.

- 2001년 개관 이후 큰 규모의 전시장 리모델링이나 수정 등은 이루어지지 않은 듯 함. 전시장 자체에 미디어 활용 등 전시패널 및 유물 외 전시를 감상할 수 있는 기자재가 없음. 준상설로 운영될 대한민국산업展의 경우 전시매체의 디지털화 등을 통해 업데이트 방안을 모색해 봐야 할 지점이라 사료됨.

### □ 관련 사진



## 5. 오사카역사박물관 사례조사

□ 일 시: 2023년 7월 22일(토) 11:00~12:30

□ 주요 내용

○ (전시내용 및 특징)

- 오사카역사박물관은 2001년 3월 오사카성 및 난바성 유적지 복원 등을 이유로 오사카성 내 있던 1960년에 개관한 오사카시립박물관을 폐관하고 2001년 11월에 새롭게 건립한 박물관임.
- 해당 박물관은 이 지역에서 배양된 역사 및 문화 유산을 기반으로 오사카 사람들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고대, 중세, 근세 및 근대의 4개 시대로 구분하여 시각적이고 역동적으로 오사카의 문화를 소개함.
- 전시 동선은 10층부터 아래로 내려가면서 전시를 관람할 수 있는 구조임. 10층에는 나라시대 나니와노미야궁(난바궁)을 실물크기로 복원하고 있음. 9층은 혼간지시대, 에도시대를 20분의 1 모형으로 나니와 도시인들의 생활을 재현하고 있으며, 7층에서는 다이쇼 말기에서 쇼와 초기 신시아이바시수지, 도톤보리 등의 거리를 등신대 크기로 재현, 소개하고 있음.
- 그 외 8층에서는 유물 발굴 등의 체험프로그램을 진행하며, 6층에서는 특별전시를 진행하고 있음. 2층에서는 나니와 역사학사라는 학습정보센터를 운영하고 있음.
- 지하층에는 아스카시대 나니와 나가라 토요사키노미야궁 발굴지를 보존하고 있으며, 당일 신청자에 한하여 관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시사점)

- 오사카역사박물관은 다른 보통의 박물관과는 달리 NHK오사카방송국 건물의 7~10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건물의 외부에서 오사카성의 전체모습을 조망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음.
- 기존의 박물관 보다는 공개 유물의 수는 많지 않으나 시민참여형 박물관을 추구하면서 유물 발굴 체험학습, 스템프렐리, 디오라마 체험 등 관람객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음.
- 전시공간이 빌딩의 고층부에 위치하고 있어 건물 내에서 바로 옆의 오사카성 및 난바궁 유적지를 한눈에 볼 수 있음. 특히 난바궁을 주제로 한 디오라마는 난바궁 유적지를 조망하면서 전시를 감상할 수 있음.
- 전체 전시공간의 절반 이상을 미니어처 및 디오라마 섹션에 부여하고

있는 점에서 다른 박물관과의 차별성을 보임.

- 특히 근대 전시장에서는 등신대의 디오라마 안에 관람객이 직접 들어가서 관람하게 함으로써 관람객들이 시대를 간접체험 할 수 있게 함.
- 대한민국산업展의 경우 과거에 대한 내용을 전시콘텐츠화 할 예정이므로 오사카역사박물관과 유사한 미니어처 모형 및 디오라마 등을 일부 활용한 전시를 벤치마킹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관련 사진

